# 해마다…가난이 부른 극단적 선택

# 기초수급자 자살 증가 추세 광주·전남지역 6년간 73명 60대 이상 고령자가 절반 "마을 공동체 등 대책 필요"

광주·전남 지역에서 해마다 목숨을 끊 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.

최근 6년(2012~2017년)간 기초생활수 급자 7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대한 자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.

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(자유한국당)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 출받은 '2012~2017 기초생활수급자 자살 현황'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살자는 지난 2012년 267명에서 지난해 335명으로 68명(26%)이 증가했으며 2012 년 이후 176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

같은 기간 광주 58명, 전남 15명 등 총 73명이 숨졌다.

연도별로 광주는 ▲2012년 7명 ▲2013 년 7명 ▲2014년 10명 ▲2015년 11명 ▲ 2016년 21명 ▲2017년 17명 등 모두 58명 에 달했다. 전남은 ▲2012~2014년 0명 ▲ 2015 1명 ▲2016년 5명 ▲2017년 9명으로 15명이다.

연령별로는 광주는 10~19세 1명, 20~ 29세 4명, 30~39세 7명, 40~49세 15명, 50~59세 21명, 60~69세 11명, 70세 이상 13명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. 반면 전남은 70세 이상 5명, 60~69세 5명, 50~59세 4명, 30~39 세 1명 등으로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 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광주에서는 남성 자살자가 37명으로 여 성(21명)보다 많았다. 세부적으로 50대 남 성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(8명), 30 대 (5명) 순이었다.

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전남지역 고령 자

살자(60대 이상) 수는 10명으로 59세 이하 5명보다 2배 많았다. 고령의 기초생활수급 자들이 생활고 등의 이유로 죽음에 내몰 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.

손명동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"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위와 단절된 채 나 홀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"이라면서 "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마을을 열고 사회 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"이라고 조언했다.

한편,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살 자는 서울 304명, 부산 273명, 경기 206명, 대구 194명, 경남 161명 등으로 나타났다.

/김한영기자 young@kwangju.co.kr



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빛고을사랑봉사단 100여명을 대상으로 핸드드립 바리스타 과정과 아로마 손마사지 전문교육을 진행했다. 〈광주시자원봉사센터 제공〉

## '배워서 남 주는' 빛고을사랑봉사단

#### 커피 제조·손마사지 교육

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빛고 을사랑봉사단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신 의 건강과 재능은 올리고 사회의 어려움 은 낮추는 전문교육을 진행했다.

이번 전문교육은 빛고을사랑봉사자 들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자원봉 사자의 전문영역도 확대하는 재교육으 로 새로운 봉사활동의 참여동기부여 및 자기계발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핸드드립 홈카페 과정은 커피이론 교 육, 핸드드립 방법과 실습을 2회차로 실 시하게 된다. 이를 통해 광주지역 자원 봉사자 참여프로그램, 자원봉사박람회

와 자원봉사자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찾 아가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전개할 계획

또 아로마 손마사지 교육을 통해 손마 사지 방법과 대상자와의 소통기술 및 이 혈요법 등을 함께 배워 사회복지시설 및 대규모 행사에서 전문자원봉사자로 활 동하게 된다.

광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"전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의 수 요에 걸 맞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다"면서 "자원봉사자 재교육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과 지역사회가 함 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/김한영기자 young@kwangju.co.kr

#### 광주 남구 7개교 초등생, 치과 무료 진료

광주시 남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 등학생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 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펼친다

10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광 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에서 '2018 년도 학교 구강보건 사업 협약식'이 열

이날 협약식에는 이정삼 남구청장 권 한대행을 비롯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, 남구 지역 내 7개 초등학교 관계자, 남구 치과의사회 및 소속 치과의원 관계자 등 이 참석했다.

남구는 올해 지역내 월산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, 농성초등학교, 백운초등 학교, 봉주초등학교, 대촌중앙초등학 교, 무학초등학교 등 7개 초등학교에 재 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 강 보건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

이다. 남구는 학교 구강보건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및 농촌지역 학생들의 구강질 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를 갖는데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우선 12곳의 치과에서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.

초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 의료 서비스는 치아 홈메우기를 비롯해 불소 겔 이온 도포, 스켈링, 충치 치료, 구강보 건 교육 등이다.

남구 관계자는 "지역내 아이들의 구 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

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 한편 지난해 학교 구강 보건사업을 통 해 총 810명의 학생들이 진료 혜택을 받 았다. 아이들은 치아 홈메우기(252건)와 불소도포(492건), 스켈링(492건), 레진 충전(82건), 아말감 충전(7건) 등의 서비

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/김한영기자 young@kwangju.co.kr

# "동화로 금연 중요성 배워요" 서구 찾아가는 예방 교육

광주시 서구가 학령전기(3~5세) 아동 을 대상으로 '흡연예방 구연동화'프로그 램을 운영한다.

10일 서구에 따르면 금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커져 금연이 어 려워지므로 흡연폐해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.

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 상담사가 방문해 교육을 펼친다.

학령전기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흡연예 방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. 또 교육 후 간접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지

원서비스 홍보자료 등을 가정에 전달해 교 육을 받은 아이들을 통해 흡연하는 부모 가 금연을 실천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예정이다.

서구 관계자는 "흡연예방 구연동화를 통해 학령전기 아동의 담배에 대한 올바 른 인식변화를 유도해 장기적으로는 청소 년 흡연시작 연령을 늦추고 성인 흡연율 을 낮춰 나갈 계획이다"고 말했다.

/김한영기자 young@kwangju.co.kr



광주시 서구가 어린이집에서 '흡연예방 구연동화'를 진행하고 있다.

〈광주시 서구 제공〉

### 언제·어디서나…서구 '찾아가는 인권교육'

광주시 서구는 "주민과 함께 만드는 인 권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'2018년 찾아가 는 인권교육'을 운영한다"고 10일 밝혔다.

이번 인권 교육은 지역주민 및 기관, 단 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인권교육을 실 시해 '언제, 어디서나, 누구나'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

2018년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▲일상 속 인권발견하기 ▲인권침해 사례 및 예 방법 ▲노인·아동·여성 등 인권취약계층

당사자 교육 ▲인권 주제별 생각 나눔 교 육 등 수요자 맞춤의 다채로운 내용으로

인권에 관심 있는 서구 내 주민 그룹은 물론 학교, 경로당,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 기관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희 망자 또는 단체는 전화, 직접 방문, 팩스,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.

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총무 과(062-360-7433)로 문의하면 된다.

/김한영기자 young@kwangju.co.kr

## 장애인 화장실 휴지통 다시 비치한다

행정안전부는 "장애인 화장실에는 성 인용 기저귀나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등 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 록 '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일 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"고 10일 밝

있게 된다.

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행중 인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, 여성화장실 관리기준이 개선된다.

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생, 초등 학생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나이를 고려 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.

행안부는 지난 1월 모든 화장실 안에 휴 지통을 없앴지만 장애인 화장실에는 휴지 통을 놓는 것이 맞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.

행안부는 화장실 대변기 칸에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 거함을 설치한 바 있다.



